

# 평가원 “EBS 연계율 70%”… 학원가 “지난해 수준”

## 2020학년도 수능 난이도 전망

평가원, 문항별 성취기준 등 공개  
입시업계, 6월 모평 수준으로 점쳐  
응시자↓·재수생↑… 불수능 예측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받고, 연계 출제되는 EBS로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기로 했지만, 입시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준의 어려운 수능이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평가원은 7일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통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EBS 수능 교재와 강의의 수능 출제의 연계 비율은 전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입시업체가 개최한 대입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 모습. /연합뉴스

평가원이 수능 문항별 성취기준과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에 근거를 뒀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학교 밖 출제 논란’ 때문이다. 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항별 성취기준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 근거해 출제했다고 해도 실제 문항이 쉽게 출제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다. 또 지난 6월 4일 평가원이 올해 수능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해 출제한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오는 9월 모의평가는 이보다는 쉽게 출제 되겠지만, 실제 수능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난이도 중간 수준이 출제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 극히 어려웠던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돼 어렵게 출제된 바 있다.

실제로 입시전문가들은 최소한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준으로 출제될 것을 감안하고 학습 방향을 정할 것을 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요대학의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 변별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실제 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소장은 “국어는 지난해 수능에 이어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수학, 영어, 탐구에 비해 변별력이 높은 영역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실제 수능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가 상위권의 정시모집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수학의 경우 지난해 실제 수능부터 달라진 출제 경향이 6월 모의평가에도 이어져 칠리문항의 난이도는 약간 쉬워지면서 만점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 영어는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7.76%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지만 여전히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 또 지난해 수능처럼 절대 평가 특성상 고난도 문항 1~2개로 1등급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1등급 유지를 위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응시자가 5만여명 줄어든 것도 올해 수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전망케 한다. 지난해 불수능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재수생도 증가해 재수생 강세도 예상된다. 응시자 수는 등급별 인원 감소로 이어져 올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 수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 국어 1등급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5046명 감소했고, 수학가형 1등급도 859명, 수학나형 1등급은 6414명 줄었다.

결국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의 수시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발생으로 수시에서 정원을 다채우지 못해 이월됨에 따라 대학별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지난해 6월 모의평가는 아주 어렵게 출제됐고, 9월에는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은 수능이 9월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능은 매우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혼란이 발생했다”며 “올해도 여전히 국영수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된다고 예상하고 학습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내일 13개 자사고 운명 결정… 재지정 ‘촉각’

(서울)

### 세부 사항 등 평가 총점 ‘비공개’ 교육부 최종 동의따라 여부 결정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9일 공개된다. 전북 상산고 등이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하는 등 평가지표 등이 논란인 가운데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물린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 중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13개 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재지정 여부가 9일 발표된다.

올해 평가 대상인 24개 자사고 중 현재까지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3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해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전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오면 동의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자사고 중 일부가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정취소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공동대응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 최종 평가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재 등이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대상 자사고 측이 평가점수 총점 등 세부 평가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평가 지표 중 ‘201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와 특별장학에서 지적사례’ 항목이 결과를 좌우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관주의 1건, 기관경고 3건, 교직원 징계 16건,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 15건, 17건으로 처분 건수가 가장 많

다. 한가람고는 교직원 주의와 경고가 각 15건, 36건으로 건수로는 하나고 다음으로 많지만 기관주의·경고나 교직원 징계가 없어 감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재고는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1건씩, 교직원 주의와 경고 각 37건, 11건으로 처분이 많았다.

자사고들이 불리한 평가항목으로 꼽히는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항목에서는 경희·동성·배재·숭문·중앙·한대부고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를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사이 4년간 학생 이탈률이 매년 3% 이상이었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 노력’ 항목에서는 세화·숭문·중동·동성고를 제외한 9개 학교가 최근 5년간 매해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20% 이상 이었던 만큼 만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가 정해지면 교육부의 최종 동의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용수 기자

## 서울 봉래초, 구청 직영 돌봄교실 운영

### 20시까지 석식 등 돌봄 제공

서울 중구 서울봉래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8일 오후 2시 서울봉

래초등학교(학교장 오시영)와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봉래초등학교에 중구청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됨에 따라, 만리동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1500세대 인

구유입으로 인한 초등돌봄 학생 수용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봉래초등학교는 기존 돌봄교실을 전면 리모델링해 수용 인원을 늘리고, 교실당 돌봄인력 2명을 배치해 저녁 8시까지 석식과 간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 학교 인근 손기정 공원 키움센터를 개관해 학교 안팎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전력 없이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앤다

### 김상우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

#### 무전원 미세먼지 포집 시스템 개발

전기 없이 주변의 바람 등을 활용해 실내는 물론 실외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성균관대학교는 신소재공학부 김상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생활 속에서 마찰 정전기를 활용한 ‘무전원·무압력 손실 미세먼지 포집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존 기계식 필터는 과도한 압력손실이 발생되고 재사용이 불가해 폐기물로 버려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식 필터의 경우 많은 공간과 큰 전력이 필요하고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大量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표면적이 극대화된 고분자 물질 융모구조(villus structure)를 구현, 바람을 활용해 다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고분자 볼(ball)과 융모 구조 간 마찰정 전기를 발생시켰다.

발생된 마찰 정전기를 이용해 압력손실 없이 건물 내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바람을 이용해 전원 공급없이 미세먼지를 손쉽게 포집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는 기계식 필터 기반 조밀한 면에서의 물리적 입자 포집 및 전기식 필터 기반 고전압을 사용한 대기방전에 의한 포집과는 다르게 압력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팀이 개발한 마찰정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필터는 나노미터 수준부터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고 압력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최계운 인천대 교수, 미세먼지 저감 심포지엄 개최

인천대학교는 건설환경공학부 최계운 교수 회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 지정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실천 방안과 산업계 차원의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 더불어 민주당 미세먼지

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 환경미디어·미래는 우리손안에가 공동주최하며 환경부가 후원한다.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최계운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